



삶은 이야기의 가장 훌륭한 질료다!  
 배문성 문화일보 문화부장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로버트 맥기 지음 | 고영범·이승민 옮김 |  
 황금가지 | 642쪽 | 값 22,000원

**삶**은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삶을 말할 때는 이야기로 해야 한다. 삶을 전하는 방법이야 얼마나 많은가. 노래, 그림 등 무릇 모든 표현은 삶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 어떤 사태를 전한다 하더라도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그 모든 표현을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사실, 이야기가 어찌 삶을 다 담아내랴 싶다. 불립문자란 말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삶의 그 오묘한, 다채로운 가치를 어떻게 한 줄기 이야기로 담아낼까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로 바뀌냄으로써 결국 그 삶의 의의와는 다른 뜻을 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된 삶 또한 하나의 삶인 것이다. 결국 이야기는 삶 속에서 구현될 때 스스로의 삶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 이야기와 삶의 순환 고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맞물린다.

로버트 맥기가 쓴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원제는 'STORY'다. 참고로 스토리라는 매력적인 제목이 있음에도 한국 출판사에서 굳이 이를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재미없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물론 책의 내용은 한국에서 번역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에 걸맞게 말 그대로 영화

시나리오 쓰는 법을 다룬다. 그러나 맥기가 정작 말하는 바는 어떤 이야기가 잘 읽히는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말 그대로 스토리, 이야기의 도저한 아름다움에 대해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부러 시나리오 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제목을 바꿨을 것이다. 그러나 책은 설사 내용이 시나리오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관련자는 물론, 문학 관련자들까지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려진 대로 맥기는 미국 영화계의 거장이다. 할리우드에서 히트한 영화치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미국 영화에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1983년부터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그 유명한 '스토리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할리우드 주요 제작자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게다가 ABC방송국과 디즈니, 파라마운트 등의 창작 스태프들은 정기적으로 그의 수업을 받고 있을 정도다.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사가 사라졌다고 비판받는 한국문학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른바 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북으로서도 이 책만큼 강렬하게 구체적인 지점을 짚어내는 책도 드물지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맥기는 성공적인 이야기의 첫째 조건은 독창성이라고 든다. 물론 독창성이란 남다른 소재의 선택이라는 내용과 특이한 화법의 조형이라는 형식의 결합을 말한다. 내용과 형식을 서로에 대해 요구하고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 작가는 한 손에는 내용, 다른 손에는 형식에 대한 능숙함이란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각해 나간다.

이 부분에서 맥기는 독창성이 이야기의 제일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맥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독창성의 개념을 강조한다.

“독창성을 얻기 위해 기이한 시도를 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오직 남과 색다르게 보이기 위해 색다른 방식을

같은 진단을 읽어보면 한국문학이 어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이야기라는 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문화적 힘이며, 영화라는 예술은 이야기라는 거대 산업의 가장 주도적인 매체다. 세계의 관객들은 시간과 돈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야기에 목말라한다.”

맥기가 드는 ‘실패한 시나리오의 두 가지 유형’은 곧바로 한국문학의 침체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된다. 실패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유형은 ‘개인적인 이야기’다. 90년대 유행한 한국의 사소설들이 왜 대중의 외면을 받았는지는 맥기의 지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맥기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작가의 관찰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보고할

**“이야기라는 예술은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문화적 힘이며,  
영화라는 예술은 이야기라는 거대 산업의 가장 주도적인 매체다. 세계의 관객들은 시간과 돈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야기에 목말라한다.”**

택하는 것은 상업적인 요구를 노예적으로 수용하는 것만큼이나 공허할 뿐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노련한 예술가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현명한 예술가라면 단지 관심을 깨뜨리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어떤 일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문장을 다루는 사람들, 이야기를 적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언으로 새겨둘 만한 말이다.

좋은 이야기는 수많은 태작들 속에서 나온다.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는 맥기가 들고 있는 할리우드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매년 할리우드에서는 4백 편에서 5백 편에 이르는 영화를 만든다. 대형 영화사들의 이야기 담당 부서들은 훌륭한 영화가 될 만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수천 수만의 시나리오와 소설, 희곡들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199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대본 구성에 들인 돈은 연간 5억 달러를 넘는다. 이 중에서 약 4분의 3은 작가들에게,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을 영화를 다시 고쳐 쓰거나 일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되는 금액으로 지출되었다.

한국문학은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나아가 이야기의 효용성 자체가 떨어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한국문학의 상황을 놓고, 맥기가 말하는 이야기의 위대함에 대한 다음과

수 있고 더욱 더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단다. 그러나 맥기는 현실을 아무리 세밀하게 관찰해도 거기서는 사소한 진실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큰 진실은 현상의 배후, 표면의 안쪽, 저 깊은 곳에서 사실성과 뒤섞인 재, 또는 그것을 찢어발기면서 관찰될 수 없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작가들이 되새겨들을 말이다.

또 다른 실패한 시나리오의 유형은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와 지나치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삶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유형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는 엔터테인먼트란 것을 동역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맥기는 쓰고 있다.

결국 좋은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맥기라는 이 할리우드 최고의 이야기 검색가는 단언한다. “모든 작가들은 이야기와 삶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야기는 삶에 관한 은유라는 사실을.”

맥기의 다음 문구는 삶과 문학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문학적 재능의 재료는 언어이지만 이야기에 대한 재능이 재료로 삼는 것은 삶 그 자체다.” **☞**